

2017. 07

Volume 9, Number 2 (Issue 16)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국립
한밭대학교
HANGBAT NATIONAL UNIVERSITY
적정기술 연구소

적정기술
미래포럼
Appropriate
Technology
Future Forum

시민 사회를 위한 기술 리터러시와 문학

임태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 왜 시민 사회를 위한 기술 리터러시인가?

인류 문명의 시작에서 2003년까지 생산된 데이터의 총량은 5엑사바이트(1Exabyte는 10byte의 18제곱에 해당한다)라고 한다. 오늘날 5엑사바이트쯤은 전 세계 네트워크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틀 치 데이터 밖에 되지 않는다. 양으로만 따진다면, 인류는 이제 막 정보의 바다에 발을 담근 셈이다. 2020년에 이르면 디지털 데이터의 생성 규모는 40제타바이트(Zettabyte)에 도달할 것이다. 전 세계 해변 모래알 수 7해 50경 개의 57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IT 자문 기관인 가트너(Gartner, Inc.)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¹⁾,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정보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한 '만물 정보(Information of Everything, IoT) 기술이 주목받게 될 거라고 한다. 사물인터넷의 접속 환경은 공기나 중력처럼 지구 어디에나 편재하는 제2의 자연으로 확장될 것이며, 여기로 유입되는 정보의 양은 우주적 단위로 폭증해서 비트화된 정보만이 실재하는 모든 정보의 총체로 인식될 시대가 머지않았다. 밀레니엄의 두 번째 십 년이 끝나기 전, 인터넷은 '정보'의 동의어가 될 것이다.

의미 있는 정보와 그렇지 못한 것을 신속하게 판별하고, 부스러기 정보에 불과한 것을 재구성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폭주하는 정보 환경에 대응할 인지 능력의 증강이 요구된다. 이를 돕는 각종 스마트 장치 개발과 비트화된 정보에 좀 더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접근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요성 역시 날로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창조경제 전략 역시 이러한 기초를 쫓았다.

전통적 문자해독 능력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이르기까지, 산업생태계의 격변기마다 국가적 기획으로 새로운 앎과 배움의 과제가 장려 또는 강제됐다. '리터러시(literacy)'는 언어를 매개로 앎과 무지를 가늠하는 공통 범주이면서, 국가와 자본이 노동자에게

1) Gartner Identifies the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6, Gartner, 2015.10.6. (<http://goo.gl/aB8M0q>)

주문하는 인지노동의 목록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워서 익힐 때마다 구직 활동이나 승진에 대비한 스펙 쌓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상품이나 돈이 되지 못하는 지식을 시대에 뒤쳐진 경쟁력 없는 것으로 팔시하는 세태에 익숙하다. 디지털 기술의 역사적 연원에는 보수적 체제에 도전해 변화와 혁신을 꿈꿨던 비주류 문화운동의 접점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디지털 신자유주의의 수익 모델에 철저히 구속돼 있다. 경제 체제에 복무하는 리터러시는 앎과 무지의 경계선에서 교육 그 자체를 질문하지 않는다.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비트를 돈처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논리만 강고하다. 이 기준에선 지식의 효용가치 역시 판매 기간 대비 수익성을 따지는 상품으로 평가된다. 취업률 저하를 이유로 대학에서 퇴출되고 있는 기초 학문의 비참한 현실 또한 디지털 신자유주의가 주문하는 리터러시의 성격을 반증한다.

근대적 교양의 삼각편대였던 문, 사, 철을 비롯해 기초 학문의 본령은 앎과 배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끈질기게 되묻고 성찰하는 것에 있다. 왜 배워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알아야 하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앎과 무지의 경계는 어제와 어떻게 다른가? 배움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돈만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더 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경제 논리를 앞세워 말소해선 안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기획 역시 환전될 수 있는 앎의 부가가치를 좇는 일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삶의 관계를 숙고하는 질문들로 리셋^{reset}할 수 있다. 이때 무지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알기 위한 적극적인 질문과 사유 없이는 얻기 힘들기 때문에 앎만큼이나 값진 성취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은 질문하지 않는 자동화된 지식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에 있어 ‘테크놀로지’의 그리스어 어원 ‘테크네(τεχνη)’를 상기하는 일 또한 근본적 질문에 닿으려는 시도다. 기술에 입각한 인간의 제작활동 일반을 일컫는 테크네는 예술^{art}, 숙련기술^{skill}, 공예^{craft}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예술의 관계를 근대 자본주의의 도구적 테크놀로지 너머로 이끈다.²⁾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테크네의 본질이 세계를 비도구적 측면에 풀어놓고, 탈은폐^{unsecuring}하는 것이며, 밖으로 내어놓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³⁾ 또한 그 움직임은 역동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상품과 서비스 제조에 정주할 뿐인 테크놀로지는 그 이상의 잠재적 역량을 발휘할 변화의 기회를 찾기 어렵다. 신자유주의에 복속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는 이 같은 사례가 허다하다. 가령 사회적 배치를 바꾸는 강력한 전기충격일

2) R. L. 러츠기, 『하이테크네』, 김상민·윤원화 옮김, 시공사, 2004, 171쪽 참고

3) 마르틴 하이데거, 『기술에 대한 물음』, 『강연과 논문』, 이학사, 2008, 34~38쪽 참고

수 있었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은 광고 대행업, 정보 가공업으로 퇴행했고, 카카오톡 감청 사건에서 보듯 국가와 기업이 시민을 감시하는 장치로 스마트폰은 공공연히 악용되고 있다. 비루한 권력의 도구가 된 기술을 어떻게 해야 다른 사회적 배치에 풀어놓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테크네의 본질에 다가가려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테크놀로지에 대한 테크네의 모색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절실한 기술 리터러시의 핵심 요건이다.

하지만 그 일을 누가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까? 100년 전, 식민지 지식인들이 근대적 문해 능력을 키웠던 때를 상상해본다. 이 땅에서 근대 문학이 태동하던 장면이기도 하다. 그때 그들이 수행했던 리터러시는 근대의 총체에 다가서려는 모든 기획에 맞닿아 있었다. 그 시절의 기개에 비하면 오늘날 대학 학제의 교육 역량이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에서 가능한 시민 사회의 가능성을 육성하고 창의성을 촉진하기는 커녕 기업이 요구하는 인적자원 공급에만 매달리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공장이 이 시대의 대학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정책의 폐해이기도 하다. 대학만이 아니라 사회 어디에서나 돈을 버는 기술을 숭앙하고 그렇지 못한 기술을 경멸하는 분위기는 노골적이다. 반대로 어찌서 이토록 돈에 강박된 채 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유를 묻는 일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제도권 교육장 바깥에서 자본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우리 삶의 관계를 면밀히 이해하고 대안적 삶의 실천을 이끌어낼 기술 리터러시와 이를 교육할 페다고지를 창안해야 한다. 기업과 국가가 주문하는 방식과는 다른 리터러시의 기획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들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공생(共生)의 기술을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시민사회가 이 질문에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청개구리제작소와 프로토크 스투디오처럼 규모와 인력은 미미하지만 열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자생적 교육 단체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⁴⁾ 이것만으로는 당장에 혁명적인 변화가 생길 것 같진 않다. 하지만 벼락이 떨어지기 직전, 구름 속에선 전자(電子)들이 어지러운 공명을 일으킨다고 했다. 들뢰즈는 이를 ‘어두운 전조’라고 불렀다.⁵⁾ 디지털 신자유주의에 맞서 시민사회가 만들어야 할 기술 리터러시는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교류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문학 역시 어두운 전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과 시민

4) 미디어 아티스트 후니다 김, 뉴미디어 교육자이자 오프 하드웨어 해커인 김승범이 주축이 된 프로토크PROTOROOM과 미디어 활동가 송수연, 최빛나로 구성된 청개구리제작소Fab coop은 한국의 자생적 제작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로 손꼽힌다. 이 두 곳은 지난 2015년 8월 29일에 ‘월드와이드 인터넷 아미이치’의 서울행사 오거나이저를 맡은 바 있다.

5)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8, 268쪽.

사회를 위한 기술 리터러시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획으로 이 글의 마지막 장에서 가속주의와 그 실천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언어 환경 전반에 기술적인 동시에 정신적인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만물정보 시대의 문학은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예측할 수 없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언어, 비트의 신호로 전환할 수 없는 풍부한 노이즈로 가득 찬 언어를 복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ICT 문화 담론이 입에 올리려 하지 않는 주제를 탈은폐시키는 일에 머뭇거리선 안 된다. 디지털 신자유주의가 인류의 사회, 문화, 신경체제에 가한 영구적 손상과 인간적 존엄을 짓밟는 노동 착취의 비참함을 직시해야 한다.

2. 접속과 증독

이탈리아의 미디어 이론가이자 활동가인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에 따르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지배적인 상호작용의 양식이 ‘결속’에서 ‘접속’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비포는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에서 “공간이 아닌 공간, 시간이 아닌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비특이화된 신체들의 통합”을 ‘접속’이라고 정의했다.⁶⁾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의 접속은 0과 1로 구성된 전자적 펄스로 이뤄진다. 이 시공간에선 비트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호환 불가능하다. 코드들의 통사 구조 혹은 운영 체제에 근거한 예측 가능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접속은 성립될 수조차 없다. 나를 나일 수 있게 하고, 너를 너일 수 있게 하는 온갖 특이성도 접속의 거름망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호를 방해하는 소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결속’은 “신체들 사이의 특이하고 반복 가능하지 않는 의사소통”이다. 결속을 위해 우리는 상대가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똑같은 메시지라도 신호의 맥락, 분위기, 말하지 않은 것까지 추적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질적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디지털 신자유주의에 휩쓸린 오늘날의 시간 생태계에선 쉽지 않은 일이다. 막대한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 인터넷은 송신 속도를 끊임없이 가속하고 있다. 이를 수신할 인간 의식의 프로세싱도 가속되고 표준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메시지의

6)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정유리 옮김, 난장, 2013, 159쪽.

모호함과 불투명성을 몇 번이고 탐색해 의미를 찾는 대신에, 접속에 최적화된 정보를 수신해 빠른 인지반응을 끌어내는 편을 훨씬 선호하게 되었다. 그 편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유는 느리고, 느린 것은 살아남을 수 없는 야만의 시대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빨라져야 하고, 그 때문에 병들고 있다. 불안정한 감정 기복, 공황, 우울증이 감기만큼이나 만연한 정신질환이 된 원인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물리적 감정적 문화적 리듬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경제 구조와 정보환경에선 누구라도 정신질환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미화의 과정을 압축하고 단축하면 흥분만 남게 된다. 신경 시냅스에서 터지는 전기 화학적 반응은 정보 환경의 가속화를 가까스로 쫓을 수 있다. 지난 이십여 년 동안 인터넷 전체가 포르노화되고 있는 이유도 가속화의 결과다. 생각에 몰두하지 않더라도 신경계에서 자동적으로 자극을 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어떤 노력도 공감도 필요 없는 볼거리다. 오늘날의 포르노 문화는 여성을 대상화한다거나, 성이 매매되는 타락을 비난하는 수준에선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음식도 포르노가 될 수 있고, 불안정한 노동의 회로도 마찬가지며, 텔레비전 뉴스와 반려 동물, 정치인의 연설문도 자극적인 포르노가 될 수 있다. 오늘날의 포르노는 타인의 기쁨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감성과 감수성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그로 인해 결핍되거나 말소될 수밖에 없는 언어의 빈자리가 외설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다. 사람들로부터 결속의 진중한 시간을 쉴 새 없이 빼앗는 폭력적인 정보환경도 포르노 뒤에 숨어 있다. 하지만 결속에서 접속으로 밀려나는 가난뱅이들의 세계가 지겹고 괴로워서 사람들은 외려 약순환을 택한다.

디지털 세대도 근대 국가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생산적인 국민 주체의 자질을 요구받는다. 앞선 세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대 역시 근면 성실한 노동자가 되어야 하며, 유사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군인으로 징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된다는 것은 국민다움을 수행해야 하는 제도화된 생애주기를 개개인의 삶에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시간 체제다.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세대의 여러 특이성은 국민 만들기의 공정을 교란하는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디지털 세대의 무능, 무기력, 무식 역시 근대 국가의 시간 체제와 불화하기 쉽다. 이 모든 결핍은 신자유주의 사회의 자기 계발형 인간이라는 비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진단될 수 있다.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중국 정부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가장 큰 사회 위기로 규정한 중국은 인민군 산하에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

학생들을 이곳에 가둬놓고 군대식으로 훈육하며 교정 치료와 교육을 병행한다.⁷⁾ 이와 더불어 해외 사이트를 강제 차단하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 만들기는 신체만이 아니라 미디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국가가 틀어쥐고 있어야 원활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ICT 생산 공장이 밀집해 있고, 인터넷 사용 인구만 해도 7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디지털 대국이 중국이다. 중국 전체가 디지털 중독 상태다. 하지만 디지털보다 무서운 중독증이 중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국가 중독과 자본 중독이다. 병원에 갇힌 청소년들은 국가와 자본에 덜 중독된 몸뚱이기 때문에 비정상 취급을 받는다. 청소년이 학교와 가정에서 매순간 최선을 다해 연마해야 하는 능력은 시장경제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력이다. 만인의 일상이 이 능력을 관리하는 경영의 시간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자본화될 수 없는 능력은 존재 자체가 부정되거나 병 들었다고 매도하더라도 상관없는 사회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문제가 아니다. 기술이란 언제나 양가적이기 때문이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디지털 신자유주의의 이율배반적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데이터 소비 중독 상태에 몰아넣으면서, 중독자의 신체가 비국민, 탈자본화 되는 것을 잔인하게 억압한다. 이 위선이야말로 치료되어야 할 진짜 정신병의 실체다.

3. 인터넷의 역사에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

인터넷의 역사도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선택지를 일깨운다. “넷은 검열을 손상으로 해석하고 이를 우회하는 경로를 만들어 낸다.” 미국 전자 프런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공동 설립자인 존 길모어^{John Gilmore}가 1990년대 초에 했던 이 말도 인터넷이 본래 무엇이었던가를 증언하고 있다. 대중화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은 관리기능의 분산, 다원 접속, 무정부적 구조를 지향했다. 월드와이드웹이 등장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전통적 인터넷 기술인 이메일, 인터넷중계채팅IRC, 유즈넷^{Usenet} 역시 동등 계층간 통신망^{peer-to-peer network} 형식으로 운영됐다. 사용자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능력이야말로 이 시기 인터넷의 혁명적 가능성이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즈넷은 지금의 블로그만큼 인터넷의 대세를 이뤘다. 유즈넷은

7) 중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중독을 병리적 질환으로 선포했다. 인터넷 중독자 수는 2천 4백만 명에 달하고, 청소년을 위한 군대식 재활 캠프는 전국에 4백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 갱생 프로그램에는 정기적인 뇌스캔 치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는 EIDF 2014를 통해 국내에서 소개됐다. 소쉬 술람과 힐라 메달리아 감독의『인터넷 중독자 소용소 Web Junkies』(2013).

일종의 전자게시판이다. 특정한 주제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게시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그림, 동영상, 실행파일, 데이터파일 등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는 토론 시스템이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이 시스템은 아르파넷이라는 막강한 컴퓨터 자원에 연결된 버클리대가 1981년에 참여하면서 비약적 발전이 가능했다. 월드와이드웹이 등장하기 전인 이 무렵만 해도 인터넷의 용도는 정보 자원의 적절한 공유와 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유즈넷의 전송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아르파넷의 트래픽을 압도했다. 이대로는 시스템이 유지되지 못하고 ‘인터넷의 죽음(imminent death of the Net)’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유즈넷 뉴스의 재전송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뉴스그룹 구성의 민주화가 필요한 시점에 ‘백본 음모단’이 역할을 맡았다. 유즈넷의 ‘백본 Backbone’이란 호스트 컴퓨터 관리자들의 동의하에 상호 연결된 컴퓨터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유즈넷 전체의 트래픽 전송을 담당하는 체계이기도 했다. 백본이 없으면 뉴스(메시지)는 송신이 지연되거나 송신되기 전에 삭제될 수 있었다. 이것은 한정된 컴퓨터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했다.

유즈넷에 7개의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한 백본 음모단은 대개 20~30대 남성 컴퓨터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은 인터넷이 고상한 성지처럼 운영되길 바랐다. 성이나 약물에 관한 뉴스그룹의 전송은 거부했고, 어떤 뉴스를 논쟁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에도 비민주적이었다. 백본 음모단이 유즈넷 이용자들을 향해 갑질을 휘두를 수 있었던 명분은 전송 비용 때문이었다. 포르노 따위에 돈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그들이 유즈넷 참여를 중단하기라도 하면 연결망은 축소되고 모뎀 속도와 저장능력이 저하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 인터넷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돈이 문제였다. 백본 음모단의 분류 체계에 반발한 이들은 아르파넷을 통하지 않는 커뮤케이션 통로를 고안해 alt라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alt.drugs’, ‘alt.sex’ 등의 그룹이 1987년에서 1988년 사이에 창설됐다.

억압의 역사 역시 되풀이된다. 오늘날 애플과 구글 진영의 앱스토어는 백본 음모단 시절의 유즈넷보다 훨씬 더 억압적이다. 이 플랫폼에 진입하기 위해선 등록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앱스토어 판매 총액의 30%를 애플에 수수료로 떼어줘야 한다. 안드로이드 마켓에선 통신사에 30%의 수익 배분이 이뤄진다. 이런 식의 플랫폼 자본주의는 전형적인 지대 착취 구조다.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앱스토어 등록을 하려면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심의 기준은 우리 삶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해방적 역량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억압받아 왔는가를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사례가 있다.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인터넷

‘프로젝트 사이버신(Project CyberSyn)’이 그것이다. 아옌데 정권은 칠레를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주의 경제로 전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선 칠레의 현 경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중앙 집중적인 관료주의를 피할 수 있는 분권적이며 민주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되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1971년에 실제 가동됐던 사이버신 시스템이었다. 노동자들의 협동경영으로 운영되는 각 공장과 산업 단위가 이 네트워크에 속속 연결됐다. 사이버신은 1973년까지 국가 경제 시스템의 75%에 접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칠레 기득권층은 남미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것을 원치 않았다. 1973년 9월 11일, CIA의 조직적 지원을 받은 칠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날 대통령궁에 가해진 폭격으로 아옌데는 사망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인터넷이 파괴된 날이기도 했다. 오늘날의 인터넷은 이런 역사 위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⁸⁾

인터넷의 상업화가 가속되고 서버 클라이언트 위상 구조에 기초한 경제 영역의 규모가 극단적으로 확장되면서, 소통과 공유를 중시했던 초기 인터넷의 철학은 배반당했다. 지금의 인터넷과 컴퓨팅 기계들은 가능한 능력이 아니라 허용된 능력의 차트에 갇혀 있다. 이것은 기술과 더불어 우리 삶에서 가능한 행동능력의 범위도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가 접속하는 인터넷은 거대 통신사 서버에 갇힌 가두리 양식장이나 다름없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선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을 비교적 자유롭게 쏟아낼 수 있다고 믿지만, 이조차 기업이 만든 대중 통제시스템에 불과하다. 국정원 해킹 사건도 새삼스러울 게 없는 일이었다. 인터넷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정보 환경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뀐다거나 업계의 주도권이 변한다 해도 감시와 통제의 주체가 바뀔 뿐이다.

4. 노동 문제에 침묵하는 ICT 산업계

한국 ICT 담론에서 ‘노동’의 문제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소외되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책사(策士)를 자처하며 정부나 기업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많다.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디지털 신자유주의의 폭압에 맞설 방법을 고민하는 목소리는 초라하다.

노동은 산업 현장뿐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시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 시간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한 인간의 마음과 몸,

8) 김해민, 「사회주의 인터넷 - 칠레의 추억」, 『기관지 노획』, 제39호 참고.(<http://ipleft.or.kr/main/node/2209>).

생각에 갖춰지는 몇 천 배의 시간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삶이 곧 노동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직간접적으로 쏟아붓는 평생의 시간에 제값을 내는 기업은 없다. 따지고 보면 모든 급여는 최저 시급인 것이다. 고용-피고용의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가 노동하는 삶의 존엄과 자율을 책임져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 스스로 당당히 더 나은 사회를 요구해야 한다. 힘껏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다.

노동 문제를 제쳐 두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에 이를 길은 없다. ICT 산업이라고 피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쟁에서 앞서갈 블루 오션만 쫓는 hing포는 궁극적으로 산업뿐만 아니라 삶의 황폐화를 조장한다. 이 수순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가고 있는 제조업 창조경제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이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더스트리 4.0’은 ICT와 제조업의 완벽한 융합을 통해 구축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뜻한다. 독일 정부가 2011년에 내놓았던 ‘하이테크 비전 2020’에서 처음 주창됐고,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론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이 개념을 이식했다.

인더스트리 4.0은 노동 환경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전제한다. 디지털 격변기의 생산 환경에 맞춰 노동자를 제때 알맞은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을 극대화하지는 전략이다. 많이 들던 이야기의 재탕이다. 번지르르한 신조어를 덧붙였다는 것만 빼면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 노동 정책의 끝판왕이다. IMF 이후 들어섰던 역대 신자유주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규직의 유연성 확보, 비정규직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중규직’ 제도를 두겠다는 구상도 발표됐다. 노동계의 반발은 당연했다. 한국 노동자들의 근속연수 평균은 5.1년밖에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정규직’이 역사 속의 개념으로 사라질 수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에서 구조 조정될 사양산업 종사자들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사실상 이들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형편에 노동자에게서 쥐어짤 창조력과 상상력이 남아 있을 리 없다.

한편 인더스트리 4.0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마트한 노동자의 생존 매뉴얼로 ‘공유경제론’이 날로 각광받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줄어든 수익을 벌충할 새로운 경제권이 공유경제에 있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기업이 노동자의 삶을 착취하고 소모하는 방식을 노동자 스스로 자기 삶의 경영에 도입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인간 시간의 조각이 매매되고 재조립되면서, 노동자는 단편적인

세포 시간의 단위로 전락하고 있다. 이를테면 오전 10시에서 정오까지 고용되는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 새벽 2시에서 5시까지 컴퓨터 화면 앞을 떠날 수 없는 귀와 손가락, 혹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의 각종 감정 노동에 보수가 지불된다. 노동자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생산 요소, 네트워크의 끊임없는 흐름 속에 들어가는 재조합적 기호 작용의 미세한 일부에 지나지 않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선 마다하기 힘든 유혹이다.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라는 의무까지 강제 받지 않게 되었으니 당장은 반길 만한 변화일 수 있다. 재기 발랄한 아이디어와 선한 의지로 가득해 보이는 공유경제론에서도 노동의 부스러기화는 여지없이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라도 따라하기 쉽다. 겉으로 보기엔 음흉해 보이는 구석도 없다. 주문형 개인 기사 서비스인 우버(Uber)나 홈스테이 연결 네트워크인 에어비엔비(AirBnB)를 활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택시 기사나 호텔리어가 될 수 있다. 여느 때처럼 다니던 길을 다니다가도 요금을 내는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재 시간 동안 놀리는 방을 누군가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우버와 에어비엔비의 사업 모델을 응용하면 삶 전체를 ATM 기기처럼 운영할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원하는 시간 동안 내 부엌을 식당처럼 운영한다거나, 비경제활동이었던 습관적인 동네 산책을 누군가에게 데이트 서비스로 제공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할까? 가계 부채가 가중되고 고용 안정성이 악화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일에 더욱 목매달 수밖에 없다.

안정된 고용 환경과 합리적인 소득 분배는 인간의 시간을 계산 불가능하고 계량화할 수 없는 차원으로 보존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시간은 인간적 존엄의 지표여야 하고 교환가치로 가늠할 수 없는 사회적연대, 믿음,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시간은 자본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간과 자본은 디지털 네트워크에 합일돼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상업화시켜선 안 될 삶의 영역을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세계를 도래하게 할 거라는 낙관론도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최근작 『한계비용 제로 사회』(2014)에서 스마트 인프라에 기초한 협력적 공유경제의 미래가 자본주의의 종말을 유도할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책은 디지털 신자유주의가 이미 공유경제를 전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도록 무신경하다. 사물인터넷 인프라의 관리·통제를 둘러싼 싸움에서 협력적 공유사회 진영이 이길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전투를 빈다는 응원 이상의 설득력은 없었다. 리프킨은 미래의 주역이 될 세대에게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희망을 품어보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바로 그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최악의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과도기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잡하게 뒤얽힌 문제를 선불리 역사의 후경으로 떠밀어버리는 것이 리프킨을 포함한 미래학자들이 즐겨 쓰는 ‘종말’이라는 소실점이다. 이런 식의 미래학에는 동의할 수 없다. 차라리 낡고 투박할지언정 ‘노동의 현재’를 논의하는 데 귀 기울여야 한다. 1억 6천3백만 개의 일자리가 몇 백만 개로 줄어드는 참담한 과정이야말로 미래의 종말이다.

리프킨에 따르면, 이 과정을 거친 뒤 금세기 중반쯤 전 세계 고용 인력 대다수가 협력적 공유사회의 비영리 부문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한다. 그가 말한 대로 미래 사회가 무료로 가까운 재화 및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협력적 공유경제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직업을 잃고 생존의 위기에 몰린 사람들에게는 미래는커녕 내일도 불확실하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비정한 일상을 버터내기 위해 오늘 당장 무엇을 팔아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최악의 자본주의는 궁지에 내몰린 이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따리를 틀고 있다.

5. 가속주의 선언

그리하여 이 세계에서 탈출하길 바란다면 중앙 집중화된 금융 시스템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다른 경제권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 모든 ‘바깥’을 향한 갈망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속세를 등지고 자급자족의 복고적인 생활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신자유주의의 한복판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복잡성을 극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윤추구밖에 모르는 이들은 이 기술의 해방적 역량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체제를 한층 격렬히 가속시켜 개척할 수 있는 혁명의 길을 지시한 바 있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예측한 것과 달리, 자본주의는 내부적 모순 때문에 붕괴하기는커녕 체제의 모순점을 극한으로 흡수할 수 있는 내재적 출처로 건재하다. 이 메커니즘에 여태껏 투여되지 않던 분열증적인 욕망을 쏟아 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온갖 형태의 오이디푸스적 억압은 그런 일을 엄두도 낼 수 없도록 무의식의 차원에서부터 틀어막아 버린다. 인터넷 또한 디지털 버전의 오이디푸스 장치다. 내 고유한 리비도에 제일 충실할 수 있는 안티 오이디푸스의 인터넷이 구축돼야 한다. 동물의 위로부터 바이러스가 증식하듯, 새로운 욕망은 자본주의의 몸체를

빌려 새로운 탈주선을 생산한다.

하지만 어떤 혁명적 길이 있을까? 하나라도 있을까? 사미르 아민이 제3세계 나라들에 충고하듯, 세계시장에서 파시스트적 <경제 해법>이라는 기묘한 갱신 속으로 퇴각하는 것?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말하자면 시장의 운동, 탈코드화와 탈영토화 운동 속에서 더욱더 멀리 가는 것? 왜냐하면 아마도 고도로 분열적인 흐름들의 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보면, 흐름들은 아직 충분히 탈영토화되지도, 탈코드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경과에서 퇴각하지 않고, 더 멀리 가야 한다. 니체가 말했듯, <경과Prozeß를 가속하라> 사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⁹⁾

혁명은 발명과 함께 시작된다. 인터넷의 기원인 아르파넷ARFANET의 탄생이 1969년의 일이었다. 그리고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인터넷은 準 자연화되었다. 좋은 싫든 이곳이 우리 시대의 로두스다.

알렉스 윌리엄스Alex Williams와 닉 스크니체크Nick Srnicek의 「가속주의적 정치를 위한 선언 Manifesto for an Accelerationist Politics」(2013)은 자본주의적 속도를 넘어서는 디지털의 급진화를 주장했다.

‘가속주의accelerationism’는 현대 좌파들의 지배적 정서인 ‘절망’에 반대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의해 파괴된 ‘미래’를 재건하자고 외친다. 그 방법은 기술진화과정의 가속화다. 좌파는 아이디어에서만 아니라 물질적 플랫폼에서 사회 기술적 헤게모니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회의 모든 변형은 경제적 사회적 실험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선언문은 유럽의 좌파 디지털리스트들의 열렬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들의 개인 블로그와 독립 미디어 웹진 등에서 ‘가속주의’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들에 의해 마르크스와 레닌이 가속주의 사상가로 재평가되었고, 68혁명의 철학적 성취였던 들뢰즈의 안티 오이디푸스와 리오타르의 리비도 경제론이 새롭게 독해되었다. 시작은 알렉스 윌리엄스와 닉 스크니체크의 선언문이었으나, ‘가속주의’의 구체적인 체계와 논점이 잡혀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RSS 피드 기술¹⁰⁾을 기반으로 한 집단지성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¹¹⁾

9) 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김재인 옮김, 민음사, 2014, p.406.

10) RSS는 ‘rich site summary’, ‘really simple syndication’, ‘RDF site summary’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다. 업데이트가 빈번한 웹사이트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다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XML 기반의 콘텐츠 배급 포맷을 말한다.

11) 2014년까지의 ‘가속주의’에 관한 주요 논의는 책으로도 묶여 나왔다. Robin Mackay · Armen Avanesian edit, #Accelerate: The Accelerate reader, Urbanomic, 2014.

그런데 ‘가속^{acceleration}’이라니? ‘가속’에 대한 관념은 자본주의가 독점하고 있지 않았던가? ‘가속주의’라는 말은 포드주의로의 회귀나 기술 유토피아론의 재탕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진정한 가속의 행위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일찍이 들뢰즈와 과타리가 인식했듯이, 자본주의는 탈영토화의 벡터인 동시에 재영토화의 벡터이다.¹²⁾ 통계상의 수치로 과거보다 나은 현재, 현재를 극복하는 발전을 말할 수 있지만, 사회적 혁신은 자본의 틀 안에 철저히 구속된다. 가속주의는 이 틀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탈자본주의를 향해 출범할 도약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기술 발달은 자본주의에 의해 해방되었으나 꼭 그만큼 억제되어 있다. 자본주의적 사회가 넘어서지 못하게 막아놓은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능력을 발휘해 해방될 수 있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믿음이 가속주의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제약을 극복하려면, 전 지구적 사회를 아우르는 합리적 투쟁 이상의 목표를 좇아야 한다. 19세기 중엽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여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사로잡혔던 꿈, 즉각적인 신체 형식의 한계를 넘어 팽창하려 했던 호모 사피엔스의 꿈을 가속주의 운동으로 회복해야 한다. 오늘날 이런 전망은 순박했던 시절의 유물로 여겨지지만, 우리 시대 상상력의 심각한 결여를 진단할 지적인 척도이자, 마음과 몸을 일깨우는 미래의 약속이기도 하다. 결국, 최소한의 기술적 개량의 세계를 넘어서 포괄적인 변화를 향해 움직이는 것은 가속주의적 정치—20세기 중반의 우주 계획들의 약속 어음을 이행할 수 있을—에 의해 실현되는 탈자본주의적 사회일 뿐이다. 집단적 자기지배의 시대, 지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 자기비판과 자기지배라는 계몽주의적 기획의 제저가 아니라 그 기획의 완수를 향해.¹³⁾

이들이 주장하는 가속주의 운동은 교육과 무관할 수 없다. 공교육의 영역에서 프로그래밍교육을 정규 교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가속주의적 관점에서선 무척 반길 만한 일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능숙한 인구가 늘어날수록 집단지성, 접속지성이라 불리는 사회적 역량 또한 강화될 것이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그의 저작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중 「기계에 관한 단상」으로 알려진 장에서 ‘일반지성’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내린 그 형태를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기계에 관한 단상」은 가속주의 정치학의 출발점으로

12) 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천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새물결, 2001, p.976.

13) Alex Williams · Nick Srnicek, Manifesto for an Accelerationist Politics, #Accelerate: The Accelerate reader, Urbanomic, 2014, p.361. 인용된 부분은 다소간의 의역을 거쳤음을 밝혀둔다.

재조명된 텍스트이기도 하다.

자연은 기계, 기관차, 철도, 전보, 자동 방직기 등을 제작하지 않는다. 이들은 인간의 근면의 사물이다.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 의지의 기관이거나 자연에서의 인간 의지의 활동 기관으로 전환된 자연적 재료이다. 그것들은 인간의 손으로 창출된 인간 두뇌의 기관들이다. 대상화된 지력이다. 고정자본의 발전은 일반적인 사회적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직접적인 생산력으로 됐고, 따라서 사회적 생활 과정 자체의 조건들이 어느 정도까지 일반지성의 통제 아래 놓였으며, 이 지성에 따라 개조되는가를 가리킨다. 사회적 생산력이 지식의 형태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의 기관들, 현실적 생활 과정의 직접적인 기관들로서 어느 정도까지 생산됐는가를 가리킨다.¹⁴⁾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뒤범벅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시스템을 기업과 정부가 알아서 잘 운영해주길 바란다. 성직자 도움 없이는 성경을 읽지 못했던 중세의 문맹자들이 꼭 이런 신세였다. 이대로라면 2000년대와 2010년대는 디지털 중세기로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혁신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ICT 기업들의 기만적인 마케팅에 대중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나의 정보 자산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대중들이 처한 무식의 비참함이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전반에서 지식의 허방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 교육 정책의 변화만 기다려서는 될 일도 안 된다. 시민사회가 역량을 모아 디지털 중세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몽의 기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 역시 가속주의적 실천이다.

아이들이 배우고 익힐 프로그래밍 능력은 ICT 산업에 회수될 인적 자원 수준으로 제한되어선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제도화된 교육장 안에서 배웠으나, 그 틀을 도약대 삼아 탈자본주의로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가속주의적 실천을 새로운 세대에 기대하고 싶다.

가속주의적 해방 교육의 구상은 SF의 사회적 의미와 효용의 재발견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SF 문학은 우리 사회의 가능한 잠재력들이 발휘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겨나는지 구상한다. 실제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떠돌고 있는 미래성^{futurity}에 관한 사유의 실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배태한 미래주의적 경향을 포착하고,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의 암묵적 조건을 조작하는 생각의 기술이 SF와 함께 구상될 수 있다. 영국의 소설가 J.G. 발라드는 SF의 역할이 사이버네틱 사회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리얼리즘이

14) 칼 마르크스, 「고정 자본과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I』, 김호균 옮김, 그린비, 2000, p.382.

아니라, 가속화의 주재료라고 옹호한 바 있다. SF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흥미로운 기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사회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문학이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현재를 이끄는 더 나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 미래는 기다림과 기대의 조건이자, 몸과 정신의 성향을 미리 결정짓는 조건이다. 에스에프는 현재의 '의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구성 요소를 예측적으로 재조합하여 미래의 구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성을 자극할 것이다.

핵심어 : 기술 리터러시, 문학, 디지털 테크놀로지

편집위원

위원장 홍성욱 (suhong@hanbat.ac.kr)
부위원장 김정태 (danhovision@hanmail.net)
위원 강경철 (pkkang@kist.re.kr)
김주헌 (zestor33@gmail.com)
백승철 (director@misociety.net)
신유진 (meggonagul@gmail.com)
염주연 (veilchen@hanmail.net)
이종현 (presidentjhl@paran.com)
하재웅 (younstory@gmail.com)
허성용 (africainsight@africainsight.or.kr)

적정기술, Vol. 9, No. 2, 2017

2017년 6월 30일 인쇄

2017년 7월 1일 발행

발행인 : 홍성욱

발행처 :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적정기술미래포럼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전화 : 042-821-1536

팩스 : 042-821-1593

인쇄처 : 이미지룩 Tel. 042-627-3105

I S S N 2287-6707

적정기술

2017.07 | Volume 9, Number 2 (Issue 16)

Appropriate Technology

 **국립
한양대학교**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적정기술 연구소

적정기술
미래포럼

Appropriate
Technology
Future Forum